

한전, 에너지 유망기업 300곳 키운다

2020년까지 발굴·육성사업

18개 기업과 1차 업무협약

각 2억원 지원·사무실 제공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28일 본사에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 대·소기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와 함께 '제1차 KEPCO 에너지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18개 스타트업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은 에너지신산업분야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에너지생태계의 성장발전을 위해 2020년까지 KEPCO 에너지 스타트업 300개사 발굴 및 육성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제1차 에너지 스타트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에너지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상생서포터즈공모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으로, 총 54개의 스타트업이 공모하여 최종 18개사가 뽑혔다.

한전은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에 대해 ▲기업별 2년 동안 2억원 한도의 자금 지원 ▲빛가람혁신센터에 입주 사무실 제공과 한전의 실증 시험센터 이용 ▲한전의 특허 기술 활용과 분야별 기술 멘토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28일 나주혁신도시 본사에서 18개 스타트업 대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전 제공〉

원할 예정이다.

또 스타트업 프로그램 이후에도 중소기업 R&D협력, 수출 파일럿 프로젝트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강소수출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타트업의 마케팅과 수출활로 개척을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환익 사장은 "스타트업으로 최종 선

정된 기업에 대하여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한전은 중소기업과의 견고한 동반성장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한전이 가지고 있는 전력빅데이터 등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스타트업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에너지 분야 생태계 발전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타트업들이 빛가람 혁신도시 일원에 구축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생태계에서 기존 기업들과 어우러져 에너지 클러스

터를 형성하고 차세대 주역으로 자리잡아 나가길 기대한다"면서 "2020년까지 300개의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1차 스타트업 선정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은 앞으로도 스타트업들의 추가 발굴과 육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4월부터 신생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2차 KEPCO 에너지 스타트업'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올해의 '한전KPS인'

김영호 선임전문원

발전재단 종합서비스회사인 한전KPS(사장 정의현)는 사창립 제33주년을 맞이해 솔루션실 김영호 선임전문원(사진)을 올해의 '한전KPS인'으로 선정했다.



한전KPS는 매년 회사 경영방침 및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한 직원을 추천받아 공적 현지실사 및 특별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고 권위의 '한전KPS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한전KPS인'으로 선정된 김영호 선임전문원은 발전기 재조절 검사(Retrofit) 분야에 있어 이론과 현장 노하우를 겸비한 독보적인 인물로 평가됐다.

1989년 한전KPS에 입사한 이후 군산사업소, 플랜트사업센터, 솔루션실 등에서 근무하며 27여 년의 정비인생을 걸어왔다.

한편 한전KPS인상 수여는 오는 4월 3일 한전KPS 창립 제33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20명, IT 금융기술 '핀테크' 개발 열전

인터넷진흥원·NH 경진대회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KISA)은 NH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과 최근 이틀간 본원 핀테크 보안·인증기술 지원센터에서 'NH-KISA 농업 핀테크 해커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ISA와 NH농협은행이 지난해 9월 핀테크 서비스 개발을 공동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추진된 대회다. 학생·예비창업자, 핀테크 관련 ICT기업·스타트업 등 총 120명이 참가해 일반 서비스와 농업분야 핀테크 등 총 28개의 서비스를 선보였다.

일반부문 최우수상은 식당 등 간편결제·결제에 대해 고객과 매장 간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 '약속해결'을 내놓은 '갯하늘'팀이 수상했다. 친구들끼리 사다리타기 등 게임기능을 통해 식사비 등을 나누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래더더치'(Ladder Dutch)를 내놓은 'D4'팀은 우수상을 차지했다.

기업부문 최우수상은 전국 마을회관을 활용해 농촌체험활동·숙박공유 등 '마을회관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닉컴퍼니'가, 우수상은 농촌체험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농작교'를 내놓은 '유캔스타트'가 각각 수상했다.

수상팀에게는 상금(총 1400만원)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와 KISA가 운영하는 핀테크 보안·인증기술 지원센터 입주, 핀테크기업 지원사업 우대, NH농협은행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 NH핀테크 혁신센터 사업화 컨설팅·창업지원 우대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될 된다.

백기승 원장은 "핀테크 기술은 농업 등 다른 산업과 융합으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KISA는 다양한 핀테크 기술·서비스를 발굴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KCA '빅데이터 개방' 행자부 우수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KCA)은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3.0 평가단'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19곳을 대상으로 ▲국민맞춤서비스 ▲기관

협업 ▲데이터개방 등 4개 분야에 걸쳐 9개의 세부지표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KCA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원스톱서비스로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전파정보 빅데이터를 개방하여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

으로 선정됐다.

또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201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우수기관(A등급)에 선정되는 등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백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블루오션’으로 뜬 서양채소

효율적 소량 공급체계 필요

농촌경제연구원 실태 분석

소비자들이 서양채소를 구입할 때 '영양기능성'을 가장 중시하고 다음으로 맛(신선도), 손질 편리성(간편성)과 다양성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산지 생산자 조직·단체는 조직화를 통한 소량 다품목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은 최근 수행한 '서양채소 수급실태 분석과 과제'라는 연구를 통해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서양채소를 중심으로 생산, 수출입, 유통, 소비 등 수급실태를 분석하고, 서양채소의 효율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중 FTA 등 거대 경제국과의 FTA 가속화 등으로 주요 채소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채소 농가의 경영 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근 식생활 서구화나 나트륨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식습관 개선운동 등의 영향으로 가정과 외식업체 등에서 샐러드 채소를 포함한 서양채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서양채소 1인당 공급량은 15년 전에 비해 2.6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식생활 소비 패턴 변화 및 외식수요 증가 등으로 서양채소 재배면적이 2000~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6.5% 증가했다.

서양채소류는 생산액 규모는 작지만

생산액 증가율이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 과채류 등 다른 채소보다 높으며, 이에 따라 채소 생산액 중 서양채소의 비중은 2000년 2.0%에서 2015년 7.1%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대부분의 서양채소는 가락시장으로의 반입량 증가와 함께 가격도 상승하고 있으며, 공급·소비가 연중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과거(2006~2010년) 대비 최근(2011~2015년)에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연구위원은 "서양채소는 일반채소에 비해 소비의 계절성이 뚜렷하지 않아 연중 공급이 요구되므로 조직 내외의 분업·협력 강화로 연중 공급력을 강화해야 하며, 일반채소와 대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양채소에 대한 소비는 일반채소의 소비 변화와 별도로 늘어나다"고 강조했다.

또 "서양채소는 품목별 소비량이 많지 않고 국내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아 정부의 수급안정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은 낮지만, 농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장기능에 의해 갖추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제대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형 기술지도와 전문가 플랫폼 구축,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시장 동향·분석 정보 제공, 해외시장 정보 수집 및 교육·홍보 지원, 국내 적합 품종 개발·연구 조성 등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세계 런웨이 기다려”...한콘진 ‘패션코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송수근)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직무대행 강만석)과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회장 송지오)가 공동 주관한 아시아 최대 패션문화 마켓 ‘패션코드’(Fashion KODE) 2017 F/W(이하 패션코드)가 30일 서울 푸르츠오 벨리에서 열렸다.

패션코드는 국내 패션 브랜드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패션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연 2회 개최되는 패션문화마켓으로 올해 7회째를 맞았다.

패션산업에 문화를 접목해 신개념의 패션문화를 선도하는 패션코드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가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 패션 수주회로 성장하며, 글로벌 아시아 최대 패션문화 마켓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패션코드는 이전 행사와 차별화된 공간과 프로그램 연출로 차별화를 꾀했다.

경쟁력 있는 국내 패션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패션 수주회를 비롯 참가 브랜드의 패션쇼, 프레젠테이션, 네트워킹 파티 등이 진행됐다.

패션쇼에는 ‘퍼스타드’, ‘어거스트얼라이트’, ‘바실라’ 등 총 14개의 브랜드가 참가했다. 프랑스의 ‘에디 그림(EDIE GRIM)’, ‘디메르(DEMEURE)’, 인도네시아의 ‘에스오이 자카르타(SOE Jakarta)’, ‘리아 미란다(Ria Miranda)’ 등 해외 브랜드들의 패션쇼도 펼쳐졌다.

김영철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진흥부원장은 “패션과 문화를 접목한 국제적 패션 수주회인 패션코드는 화를 거듭하며 한국 최대 문화 마켓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K-패션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국내 외 역량 있는 신진 디자이너 발굴은 물론 패션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잔혹한 나치에 맞서 800명의 목숨을 구한 영웅들

THE NAZI PARTY

관람 문의 | CBS 시네마 (Tel. 062-376-8500)

ACCOLADE COMPETITION BEL AIR FILM FESTIVAL CENTRAL FLORIDA FILM FESTIVAL SAN ANTONIO INDEPENDENT CHRISTIAN FILM FESTIVAL

생명을 바쳐 생명을 구하라

위대한 임무

RETURN TO THE HIDING PLACE

03.23 기적 같은 실화가 펼쳐진다